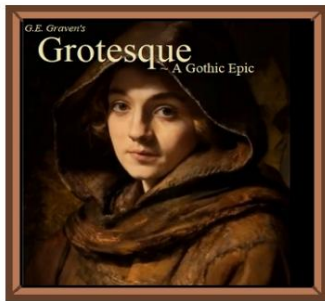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16 장



나사로는 짙으로 채워진 삼베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 익숙하지만 끝없는 꿈의 세계. 그는 꿈이 악몽으로 변하더라도 쉽게 정신을 차리고 더 즐거운 꿈의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사로는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악몽은 허름한 문 뒤에 갇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생각에 그는 더욱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풀이 무성한 언덕 꼭대기에 홀로 앉아 새소리를 듣고 따뜻한 여름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다.

짙은 파란색을 배경으로 선명한 초록색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과 드넓은 하늘이 사방으로 끝없이 이어졌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그제야 바로 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성을 발견했다. 좁고 넓은 구조의 성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푸른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진 지평선을 뚫고 눈부신 흰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계단식으로 쌓인 성벽은 창문이나 문 하나 없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을 향해 걸어갔다. 혹시라도 뒤돌아보면 건초 침대에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뒤돌아보았다.

건물의 좁은 면에 가까워지자, 그는 희미하게 문틀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는 그림자 같은 틈으로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하얀 문 하나를 발견했다. 라자루스는 문을 열었고, 안쪽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다. 마치 수도원의 베니온 홀처럼.

터널의 벽돌들은 지하묘지처럼 회색빛이었고 습기에 젖어 반짝거렸으며, 축축한 공기 속에는 썩어가는 듯한 달콤한 냄새가 감돌았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다.

점점 커지는 그의 눈동자는 불빛 하나 없는 복도의 굽이굽이를 따라 움직였다. 축축한 복도 바닥에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미끄러웠다. 또 다른 모퉁이를 돌아, 그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서서 멀리서 메아리치는 비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앞에는 불빛이 환하게 켜진 복도 한가운데가 보였다. 깃발들이 은은한 빛으로 그를 불렀다.

나사로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는 빛을 따라가 입구를 발견했다. 모퉁이를 돌아보니 사람들로 가득 찬 넓은 방이 보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고,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 주위를 살폈다. 마치 그의 존재가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햇불에 비친 벽을 따라 칼을 든, 옷을 거의 입지 않은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제단 같은 탁자 뒤에 두건을 쓰고 긴 옷을 입은 남자가 서서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긴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라자로는 그가 어떤 종류의 사제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라자로는 그의 얼굴 생김새를 드러낼 만한 미묘한 특징들을 찾아보았지만, 두건 아래 희미한 검은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돌 탁자 표면은 분명했다.

그을리고 검게 그을린 표면은 아마도 이전에 잦은 화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것은 새까맣게, 한때 수도원 지하 묘지의 벽을 장식했던 그을음으로 뒤덮인 조각상보다 더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그는 제단 뒤를 돌아보았고, 사제 옆에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덩치가 크고, 벌거벗은 데다 남루한 몰골이었는데, 나사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를 데리고 나오시오!” 사제가 입구 쪽을 향해 소리쳤다.

엘조는 몸을 돌려 급히 다가오는 두 병사가 빼만 남은 발가벗은 포로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라자루스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땀에 젖은 남자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짐작하려 애썼다. 그는 포로 생활에 몹시 지쳐 있었다. 발버둥 치고 입김을 불고, 거품을 물고, 눈을 굴리고, 팔을 마구 휘두르고 있었다.

빼만 앙상하고 머리카락도 없는 머리였다. 두 병사는 그 남자를 방 한가운데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후, 팔을 벌려 쪽 뻗게 하여 그 자세를 유지하게 했다.

“그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해!” 얼굴 없는 사제가 지팡이로 돌 바닥을 내리치며 외쳤다.

“제대로 된 겁니까?” 라자로가 물었다.

사제는 돌아서서 그에게 말했다. “그는 고쳐야 합니다.”

라자로는 사제 옆에 서 있는 초췌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라자로는 돌아서서 “고쳐진 건가?”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을 마주치기도 전에 건장한 병사가 장검을 휘둘러 남자의 목을 베어 버렸다. 잘린 목은 라자로 옆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라자로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잘린 목과 축 늘어진 몸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병사는 여전히 몸통을 꼭 붙잡고 있었다.

곧바로 동물 가죽으로 온몸을 감싼 뚱뚱한 난쟁이 두 명이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한 명은 구부러진 조각칼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석공용 망치와 긴 쇠못을 휘두르고 있었다. 칼을 든 난쟁이는 시체 쪽으로 달려가 목이 잘린 부분에서 살점을 깎아 내어 넓은 칼자국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다른 난쟁이는 죽은 자의 머리를 집어 들고 몸통 뒤쪽으로 옮겼다.

그러자 두 난쟁이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첫 번째 난쟁이는 몸을 굽혀 무릎에 손을 짚었고, 두 번째 난쟁이는 머리와 망치를 손에 든 채 그의 등에 올라탔다. 위에 올라탄 난쟁이는 머리를 몸통 위에 뒤집어 엎고 입을 벌린 다음, 쇠못을 혀에 박아 머리를 몸통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리고 나타났던 것처럼 순식간에 두 난쟁이는 방을 나갔다.

정신이 멍해진 라자로는 그 끔찍한 광경에서 눈을 돌려 제사장에게 물었다.
"왜?"

그러자 사제는 담담하게 "그는 악마였고, 망가져 있었지만, 이제는 고쳐졌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고쳐졌다고? 아니, 그는 망가졌어!" 나사로가 소리쳤다. "그는 죽었어!"

"그는 더 이상 격렬한 감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사제가 설명했다. "그는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이제 그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머리가 거꾸로 뒀잖아! 어떻게 고쳐야 하지?"

잠시 동안 얼굴 없는 사제는 라자로를 응시했다. 그러더니 두건 아래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말했다. "너도 격렬한 분노에 휩싸여 있군. 마찬가지로 마음이 산산조각 났군." 그는 라자로를 가리키며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저 녀석도 고쳐주소."

피 묻은 장검을 든 거구의 병사가 그에게 다가오자, 라자루스는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요, 저는 이미 고쳐졌습니다. 제 말은, 저는 "

라자루스는 몸을 돌려 방을 뛰쳐나갔다. 그가 왔던 검은 복도를 질주하던 순간, 익숙했던 복도의 굽이굽이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깨달았다. 둥근 모퉁이를 돌 때마다, 갈라지는 통로를 지날 때마다 더 많은 갈래길이 뻗어 나가 마치 복도가 폭발하듯 터널의 그물망으로 변해, 걸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검은 미로를 이루고 있었다. 새로운 통로에는 이전 통로보다 더 많은 계단이 있는 듯했고, 마치 모든 방향이 그를 거대한 흰 성의 더 높은 곳, 더 깊은 곳으로만 이끄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치 그가 수도원 지하 묘지에서 쫓기던 시절, 병사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외침을 떠올리는 순간,

그는 이제 추격하는 경비병들의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단지 꿈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몸은 다른 곳, 그와는 완전히 떨어진 어딘가에, 투박한 문 뒤에 갇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마치 바스톤의 지하 묘지에 안치된 시체 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로는 재빨리 모퉁이를 돌아 거칠고 쇠끈으로 묶인 문을 발견했고, 그 안으로 재빨리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덮쳤다.

병사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라자로는 문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쉼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속삭였다.

깜짝 놀란 라자로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그의 앞에는 작고 밀폐된, 어수선한 방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불이 온몸을 덮고 머리만 드러낸 채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근처 등잔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나사로는 그 남자의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았다.

“어떻게 당신 이 여기와 저기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그가 온 방향.

“아니, 내가 아니야. 우리 생김새가 꽤 비슷하거든.” 남자는 병약하고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사제 옆에 서 있는 걸 본 건 내 사악한 동생이야. 그가 널 찾으면 죽일 거야.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그가 올 거야. 항상 여기로 들어오거든.” 그는 기침을 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트림을 하다가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은 듯 시트를 목에 더욱 바짝 끌어당겼다.

“무슨 일이냐?” 나사로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젊은이, 친절하군요. 저는 이제 훨씬 나아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요. 하지만 떠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저를 찾아온 것처럼 당신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라자로는 떠나려고 문 쪽으로 돌아서려던 찰나, 점점 커지는 발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예전에 그가 따돌렸던 병사들의 소리였을 것이다. 그는 방을 훑어보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나갈 다른 길이 있습니까?”

“숨어야 해.” 남자가 대답했다. “그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 그는 침대 반대편으로 몸을 굴러 앉았다. 창백한 등을 나사로에게 돌린 채 어깨 너머로 그를 꾸짖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내 잠을 방해하다니! 그런데도 여기 있잖아!”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문이 덜컥거렸다.

“이제 내가 너를 그에게서 숨겨야겠다! 이리 오너라!” 그는 일어서서 몸을 돌리며 외쳤다. 벌거벗은 남자가 나사로를 완전히 마주 보았을 때, 엘조는 마치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남자의 몸통 전체가 텅 비어 있고 내장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장기들이 사라진 텅 빈 공간에는 방의 등불에 반짝이는 붉은 조직으로 이루어진, 주름지고 벌어진 자궁만이 드러났다. 텅 빈 남자는 침대 주위를 씩씩거리며 자신의 움푹 들어간 곳을 가리켰다. “서둘러! 숨어야 해!”

라자로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안쪽이요?”

아니요, 다른 곳을 알려주세요.

“다른 길은 없어! 자, 안으로 들어오렴. 내가 너를 그에게서 구해 주겠다!”

마치 온 군대가 북을 치는 듯한 굉음에 문짝이 덜컥거리는 것 같았다.

나사로는 마지못해 그의 온몸을 남자의 따뜻하고 축축한 몸속으로 밀어 넣었다.

안으로 들어온 라자로는 마치 어미의 주머니 속 유대류처럼, 인간의 껍데기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라자호와 함께 있는, 겉모습이 임신한 듯한 남자는 몸을 돌려 방 뒤쪽 벽으로 다가가 밤하늘이 보이는 유일하게 열린 창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벽에는 창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자호가 말했다. “그리고 햇빛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입 다물어.” 남자가 속삭이듯 꾸짖었다. “그가 우리를 발견할지도 몰라! 창문 밖에 숨어 있으면 그가 방을 비울 거야.” 남자가 창턱에 걸터앉자, 라자로는 땅을 얼핏 보았다. 땅은 마치 여러 계단의 높이를 합친 것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전에 남자의 방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위층으로 올라갔었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게 목을 매달 것이다. 그는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다른 곳에서 수색을 계속할 것이다.” 남자는 이렇게 덧붙이며 손가락으로만 간신히 떨어지지 않도록 성벽 바깥쪽에 매달렸다.

“다른 데요?” 라자호가 물었다. 그는 몸을 움직여 보았지만, 그의 날개가 남자의 갈비뼈에 완전히 박혀 있는 것을 느꼈다.

“침묵해! 썬!” 문이 광 달하는 소리가 들리자, 사악한 동생이 드디어 들어왔음을 암시하며 남자가 썬 소리를 냈다.

라자로는 숨을 죽이고 선한 사람의 사악한 쌍둥이가 짓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를 체포해! 칼은 안 돼! 나는 그 망가진 아이를 원해—다치지 않게!” —그에게 그것은 바로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 본 선장이라고 불리는 사람.

창밖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리에 나사로는 마치 군인들이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진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갑자기 정적이 흘렀는데, 아마도 수색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았다.

갑자기 위에서 본 선장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자네는 요나를 뱃속에 품고 있군.”

“안 돼! 제발 부탁이야, 형!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 두 손을 다 들 수가 없어!”

우리를!”

“형제여, 이제 때가 됐소. 자네는 제정신이 아니 소. 뭔가 잘못됐소.”

“도와주세요! 저는 추락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텅 빈 몸에서 팔을 뻗어 절벽을 잡으려 했지만, 절벽마저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는 갈비뼈로 이루어진 우리 안에 갇힌 채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광! 그는 온 힘을 다해 땅에 내리쳤고,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부서진 남자의 몸에서 기어나와 그를 깨우려 애썼다. “우리는 반드시

"도망쳐! 서둘러!" 그러나 그 선한 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사로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끔찍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했다. 이 모든 일들이 악몽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어쩌면 어떻게든 깨어나면 이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르릉!" 나사로는 고개를 돌려 보니 옆에 커다란 붉은 개가 꼬리를 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사로가 천천히 일어서자, 그 피조된 짐승은 갑자기 멈춰 서서 마치 나사로를 알아챈 듯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살금살금 다가와 멈춰 섰다. 별빛 아래에서 나사로는 그 개의 병든 모습을 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으며, 다리는 휘청거렸고, 붉은 털은 기름지고 엉겨 붙어 있었다. 마치 네 발 달린 죽음이 스스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 짐승은 정신이 나간 듯 나사로에게 애원하며 부러지고 썩은 송곳니를 드러냈다. "친절하신 분, 당신의 목에 입맞춤을 해야 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재내기 위해.

"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자로는 중얼거리며 죽어가는 개에게서 뒷걸음질 쳤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니 외딴 언덕 위에서 있었고, 하얀 성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나무 한 그루도 없었고, 끝없이 펼쳐진 구름과 그 아래 눈앞의 병든 짐승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넌 꼭 그래야 해." 그 동물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말했다. 썩은 이빨을 더 드러내며 절뚝거리며 앞으로 다가왔다. "딱 한 번의 키스만 있으면 돼."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온화하게 대할 것입니다.

나사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네가 내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도 없어요. 키스 한 번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로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그 짐승은 그의 뒤를 따라 총총걸음으로 걸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친절하신 분, 제 목덜미에 입맞춤만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사로는 몸을 돌려 쏘살같이 달려갔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날개를 펼치고 저녁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죽음의 개는 그를 따라갔다. 뛰쳐나오지 않고 그의 바로 뒤에서 총총걸음으로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목을 내밀라는 겁니까?"라고 되뇌었다.

나사로는 날개를 퍼덕였지만 높이 날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뛰어오르고, 발버둥 쳤다.

날개가 잘린 채 다시 일어난 그의 모습은 마치 날개가 잘린 새가 날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나사로는 마치 공기의 장력이 사라져 날개가 제대로 된 양력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는 슬쩍 뒤를 돌아보아 그 개를 보았다.

여전히 그를 뒤쫓고 있었지만, 그 짐승은 이제 뒷다리로 똑바로 서서 걷기 시작했다.

“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나사로는 날개를 접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언덕을 가로질러 기괴한 짐승에게서 도망쳤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마치 공기가 젤리처럼 굳어버린 듯했고, 물속을 헤쳐 나가는 것 같았다. 숨을 만한 은신처도, 따라갈 만한 곧은 길도 찾을 수 없었다. 땅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울퉁불퉁했으며,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괴로운 생각은 그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모든 면에서 가차 없는 악몽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 단순히 깨어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렸고, 똑바로 서 있던 개가 하얀 성에서 봤던 복면을 쓴 사제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목이 왜 그래요, 선생님?” 사제가 긴 지팡이를 짚고 그를 뒤쫓으며 소리쳤다. “고쳐주세요.”
나!”

“안 돼!” 나사로가 침을 뱉으며 말했다. “나를 내버려 둬!”

“안 돼!” 도포를 입은 남자가 되받아쳤다. “나를 고쳐줘!”

여전히 걸음을 옮기던 라자로는 그 남자가 후드를 벗어 익숙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그것도 쌍둥이 형제의 것이었다. 이제 형제는 세 명이 되었다.

그는 물처럼 흐르는 바람을 맞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손이 거의 땅에 닿을 때까지 계속 나아갔다. 그런 다음 풀을 움켜잡고 팔을 두 다리처럼 사용하며 달리면서 몸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손가락으로 땅을 할퀴어 흙을 더욱 빠르게 끌어당겼다. 다시, 그는

그는 뒤를 힐끗 돌아보았고, 자신과 사제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자 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네 발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언덕을 넘어 질주하며 앞길을 가르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얼굴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길쭉한 주둥이가 시야를 가로막고 솟아오른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치 야생 개처럼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

쿵쿵쿵! 햇불과 무장한 병사들이 방을 가득 채우고 그를 에워싸자 라자로는 침대에서 허둥지둥 뛰어내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라자로는 어느새 결박당한 채 방에서 끌려나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를 복도로 끌고 갔는데, 그 복도는 구덩이 문에서 점점 멀어져 성의 중심부로 향하고 있었다.

준비된 병사들이 줄지어 그의 앞길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통로를 지나 더 넓은 2층 복도로 향했다. 호위병들은 아치형 입구를 통해 라자로를 인도했다. 이동하는 동안 건조, 땀, 오줌, 피가 뒤섞인 냄새가 더욱 뚜렷해졌고, 라자로는 코를 찡그렸다.

마침내 그는 벽이 갈라지면서 드넓은 공간, 즉 높은 벽과 아치형 천장을 가진 거대한 홀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홀 중앙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외벽 에 기대어 서 있는 동료 병사들과 합류했고, 나사로에게 그 자리에 남아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사르가 들어오자 홀 전체에 속삭임과 탄식이 퍼져 나갔고, 여러 소음이 뒤섞여 마치 하나의 소리 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끔찍한 뱀이 끊임없이 씹는 소리 같았다. 라자로는 큰 홀을 살피보았다. 그것이 모인 군중들.

그의 왼쪽에는 당황한 여인들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아치형 입구 앞에 웅기증기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을 시종들러 왔지만 고기를 가져다주며 돌려보냈던 하인의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하지만 빨래하는 여인과 그녀의 하녀 세 명은 보이지 않았다. 하인들과 아이들 너머로는 그를 더 잘 보려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벽에서 뻗어 나온 무대 같은 단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줄의 남자들이 합창단처럼 서거나 앉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정복을 입은 기사였고, 어떤 이들은 고위 관리의 예복을 입었지만, 대부분은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그들 바로 앞에는 다리가 여러 개인 긴 탁자가 단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해지고 뭉쳐진 식탁보가 탁자 윗부분의 3분의 1을 덮고 있었고, 남은 부분은 바닥 돌바닥에 널려 있었다. 갈색 얼룩과 자국이 식탁보를 더럽히고 있었는데, 이는 휘둘러진 칼에서 튀어나온 피의 흔적이었다. 탁자 윗부분에는 투구, 칼, 그리고 다른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테이블 오른쪽 맨 끝자리에는 정교하게 조각되었지만 부분적으로 부서진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고 발을 치켜든 채, 피 묻은 부츠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 그의 모습. 라자루스에게 그의 위엄 있는 존재감과 강렬한 시선은 절대자의 모습을 암시했다. 권위적인 모습 이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있는 유일한 남자였다. 그는 상당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다. 눈 사이가 꽤 벌어져 있고, 뺨은 넓으며, 수염은 덥수룩했다. 그의 두꺼운 머리카락은 마치 땀에 젖은 투구에 눌린 듯 머리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오른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양피지를 쥐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그의 자세와 태도는 갑작스러운 방해로 생각이 흐트러진, 근심에 찬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높이 솟은 벽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거대한 나무 기둥들 앞에 활을 쏘는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벽 중앙에는 커다란 출입구가 있었고, 그 틀과 철제 띠로 묶인 이중문은 낡고 휘어져 있었다. 문은 비뚤어지게 닫혀 있어 나사로는 밤하늘을 살짝 엿볼 수 있었고, 그는 가장 높은 별을 발견했다.

성벽 꼭대기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초승달 모양의 곡선.

그는 "하늘이 이토록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토록 멀리 느껴진 적은 없었다" 고 말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자신이 왔던 복도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병사들로 북적였지만, 인접한 뒷벽은 무방비 상태였고, 그 아래에는 건초를 채운 삼베 깔개가 쌓여 있을 뿐이었다. 벽의 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태피스트리들이 화려한 문양과 문장으로 수놓아진 채 걸려 있었다. 하지만 태피스트리들은 마치 대칭을 이루듯 배치되어 그 사이에 텅 빈 공간이 드러났는데, 밝은 색 벽돌로 이루어진 그 공간은 마치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

“나사로 고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나사로는 돌아서서 보니 그 남자는 서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양피지가 들려 있었다.

“나는 휴건 경이다.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나리.” 라자루스는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휴건을 바라보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며 양피지를 살펴보았다.

나사로는 그가 책을 읽는 동안 고개를 기울이고, 입술을 오므리고 눈썹을 치켜올리고, 고개를 들어 자신을 쏘아보는 것을 보았다.

이에 라자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투명스럽게 “주님.” 이라고 대답했다.

“그렇군요.” 휴곤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뒤를 돌아 합창단처럼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복을 입은 고위 관리 한 명을 불러냈다. 그 남자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휴곤은

그는 나사로를 향해 양피지를 가리키며 “그러면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라자로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새 양피지 더미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운데 입은 남자는 펜촉이 꽃힌 잉크병 몇 개를 양피지 더미 옆에 놓고는 낯쇠로 만든 듯한 삼각대 장치를 복잡하게 조립하기 시작했다. 라자로는 한숨을 쉬며 낡은 복도 문과 드러난 달을 슬쩍 쳐다보았다.

“천천히 앞으로 나오시오.” 휴건이 명령했다.

라자로가 다가오자 휴곤이 손을 뻗어 그를 붙잡으며 “거기 서 계세요.” 라고 말했다.

나사로는 그의 말에 따랐고, 남자가 금속 장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에 다시 시선을 돌렸다. 특이한 장치는 세 개의 다리를 펼친 채 30cm 남짓 높이로 서 있었고, 틀 안에는 지름이 30cm가 조금 안 되는 오목한 황동 접시가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나사로는 접시 안쪽 표면이 마치 고급 황동 거울처럼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표면 전체가 영롱하게 빛났지만, 얇고 끊어지지 않은, 광택이 나지 않은 테두리 부분에는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남자는 접시를 받침대에 고정하고, 여러 개의 레버로 수평과 수직 각도를 조절했다. 나사로는 그 투박한 뒷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뒷면에는 날개 달린 뱀이 몸을 웅크리고 자신의 꼬리를 먹는 모습이 크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장치의 복잡하고 특별한 디자인은 접시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남성에게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삼각대의 두 다리는 매달려 돌출된 선반을 지탱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슬라이딩 셔터가 달린 작고 반사되는 장치가 놓여 있었다.

남자는 켜진 양초를 안에 넣었다. 그는 셔터를 조절하면서 낯선 거울에 초점을 맞추었고, 마침내 나사로 는 촛불의 반사광에 비친 남자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남자는 그는 휴곤 쪽으로 몸을 돌려 눈에 환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치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듯이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라자루스의 시선 또한 휴곤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휘몰아치는 동안, 그는 테이블 뒤에 합창단처럼 늘어선 사람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고, 그와 함께 예상치 못하게 차갑고 냉담한 시선이 포착되었다. 다른 아닌 달시쿠르 경이었다.

라자루스는 혹시라도 도움을 줄 기미가 보이길 바라는 마음에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러나 달시쿠르는 다른 남자의 어깨 너머로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휴곤은 양피지를 흔들며 라자로에게 도전했다. "내 손에는 당신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라자로 고구라고 칭하며, 기독교인이라 하늘을 나는 사람이라고 공언했죠."

휴곤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고 보면 알겠지."

"달시쿠르 경이시여!" 라자로가 폐워된 영주를 향해 외쳤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달시쿠르 경은 끝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입 다물어!" 휴곤은 고함을 지르며 양피지를 탁자 위에 던지고 단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단검을 뽑아 들고 나사로에게 달려들었다.

휴곤이 칼날을 라자루스의 목에 겨누자, 라자루스는 숨을 멈췄다.

휴곤의 말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땅의 유일한 군주는 나다!"

그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순간, 네 머리는 내 발치에 떨어질 것이다! 네가 나를 모으려 하느냐?

나사로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번 한 번만이야." 휴곤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런 잘못된 단 한 번만 용서 하지 않겠다."

"주군이시여, 자비로우십니다." 라자루스는 휴곤의 손에 들린 칼날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휴곤은 칼을 거두며 투덜거렸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 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과 함께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라자로의 팔을 붙잡고 옷을 입은 남자와 그의 기묘한 낯선 장치 쪽으로 그를 이끌면서 그 남자에게 물었다. "음식은 준비되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자는 휴곤의 말을 정정하며 짙은 이탈리아 억양으로 말했다. "문윈도우 (Moonwindow)는 요리 이름이 아닙니다."

휴곤은 라자로를 마주 보며 "서둘러라!" 하고 소리쳤다. "알아야만 한다."

그는 라자루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감탄하듯 말했다. "정말 푸르군, 가장 깊은 바다처럼." 그는 칼날로 라자루스의 뺨을 툭툭 두드렸다. "눈을 떠."

나사로가 입을 열었다.

"이뺨이 참 크군. 늑대 이빨 같아." 그가 칼날을 송곳니에 툭툭 두드리자 라자루스는 뒷걸음질 치며 입을 꼭 다물었다. "정말 그렇군." 휴곤은 얼굴을 찌푸리는 라자루스를 보며 비웃듯이 웃은 후 그의 옆으로 다가섰다.

라자로는 눈꼬리로 그를 지켜보았다.

휴곤은 조심스럽게 단검을 움직여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을 넘겨 라자루스의 축 처진 귀를 드러냈다. "이 귀는 대체 뭐지? 고양이 귀인가, 개 귀인가, 아니면 악마 귀인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주님." 나사로가 변호했다.

"말씀하신 대로군요." 휴곤이 그의 뒤로 돌아가며 대답했다. "그런데 이 기괴한 날개는 어떤 새나 박쥐, 아니면 짐승의 날개입니까?"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사로가 대답했다. "저는 기독교인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악마나 용의 그림에서나 그런 날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깃털이 없고, 천사의 날개처럼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본 적이 없어." 휴곤은 그의 옆에 기대어 속삭였다.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자로는 이를 악물고 돌아서서 휴곤에게 말했다. "주인님, 괜찮으시다면 누군가에게 제 초상화를 그리도록 시켜도 좋겠습니다."

휴곤은 순식간에 뒤로 물러나 칼을 들었다가 내리고는 꺾꺾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리하기도 하군. 하지만 자네가 날개를 펼쳐준다면 더욱 기쁘겠네."

나사로가 한숨을 쉬며 날개를 펼치자,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조용히 해!" 휴곤은 라자루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날개의 거대한 크기를 끝에서 끝까지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정말 천사의 날개가 아니군. 너무 짐승 같고, 끔찍하기까지 해."

휴곤이 그의 주위를 맴돌며 탁자 너머를 들여다보자 라자로는 날개를 다시 접었다.

웃을 제대로 입지 않은 기사를 향해 그는 물었다. "주교와 서기관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나리." 병사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전사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휴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라자루스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는 재빨리 라자루스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는 노골적으로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서한 자백서에서 당신은 휴식 없이 반나절 동안 날 수 있다고 주장했소."

"예, 나리."

휴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덧붙였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반나절 동안' 이 아니라 '저녁 반나절 동안'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휴곤은 라자루스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라자루스는 휴건이 코끝으로 숨을 내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휴건은 라자루스의 가죽 목걸이를 잡아당겨 검은 블라우스 아래 숨겨진 나무 십자가를 드러냈다. "대낮에 날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있나?" 그는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문지르며 라자루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응답.

나사로는 시선을 피한 후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저녁의 서늘한 하늘이 비행에 더 적합합니다, 주님."

휴건은 입술을 꼭 다문 채 대답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마치 달빛 아래에서 싸우는 게 더 나은 전투처럼 말이예요." 그러고는 라자루스를 매섭게 노려 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요한 잠 속에서 죽는 게 가장 좋듯이 말이죠."

"아마도, 주님 말씀대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자로가 대답했다.

휴곤은 기도 십자가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서 단검을 번쩍였다. "손을 들어라."

휴건이 그의 손목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자 라자로는 이를 악물었다. 휴건은 "너는 악마의 이빨을 가졌고, 악마 같은 귀를 가졌으며, 용의 날개를 달았고, 네 눈에서는 얼음 바다처럼 차가운 푸른 눈빛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했다.

밧줄은 미끄러져 내려가 바닥에 엉켰다.

"주님, 저는 비행 중인 기독교인입니다 ..."

"두고 보면 알겠지!" 휴건이 외쳤다.

나사로는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휴곤은 "내가 당신을 풀어주는 것은 신뢰나 친절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나리?"

휴곤은 설명했다. "악마는 속박된 상태에서는 풀려나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하고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자네는 내 앞에서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휴곤은 칼을 거두고 빈손을 내밀었다. "날 죽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다."

라자루스는 휴건의 뒤를 슬쩍 흘끗 보고는 달시쿠르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고는 휴건에게 말했다.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리."

"당신의 소원이나 말은 상관없습니다." 휴곤은 라자로의 팔을 잡고 탁자에 앉아 있는 예복을 입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데려가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낼 것입니다."

달 표면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물었다. "준비됐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나리." 남자는 대답한 후 그 장치 옆쪽으로 고개를 돌려 휴건에게 속삭였다. "달 접시도 아니고, 창문 접시도 아니고, 창문 접시 도 아닙니다."

저건 달빛창이야.

휴곤은 심술궂게 손을 흔들며 그를 내쫓았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난..."

자, 이제 날개 달린 남자를 네 앞에 데려오너라.”

“달빛 창문 말씀이십니까, 나리?” 라자로가 물었다.

휴곤은 그를 노려보았다. "정말이군.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하고도 신성한 눈,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의 삶 과 아직 탄생하지 않은 왕국들의 모습이 영원히 새겨지는 곳이지."

돌에 새겨진 글자입니다.” 휴곤은 손짓과 함께 손을 펴서 라자로를 예복을 입은 남자에게 소개했다. “저의 놀라운 점성술사이자 사제인 알베르트 드 엘호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언자 중의 예언자이자 저의 개인적인 예언자인 알베르트는 당신이 제 탐 창문으로 몰래 들어와 제가 잠든 사이에 단검으로 저를 죽이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라자로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은 채, 어처구니없어 보이는 그 비난을 곰곰이 생각했다. 잠시 생각한 결과, 누군가가 휴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단검, 그리고 탐 창문이 포함된 음모가 꾸며졌다. 그는 달시쿠르 쪽을 바라보며 그를 찾으려 애썼지만, 몰락한 영주는 여전히 군중 속에 숨어 있었다. 그는 하인들을 살살이 살피며 아는 얼굴을 찾으려 했지만, 시종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빨래하는 여인이나 그녀의 하녀들도 그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았다. 라자로는 한숨을 쉬며 명백한 사실을 내세워 변명했다. "하지만 영주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온 이후로 계속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휴곤은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 하지만 당신은 그랬죠—사흘 후 —하지만 제가 당신의 살인적인 손길을 막았잖아요!"

나사로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주님, 괜찮으시다면,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손을 막으셨다면, 저는 사흘 후에도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겁니다."

이에 휴곤은 “하나님의 은총과 나의 점성술사, 그리고 그의 놀라운 창틀 덕분이지.” 라고 대답했다.

“문원도우입니다, 나리.” 알베르트가 친절하게 끼어들었다.

“바로 그거야.” 휴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알베르트의 선물과 그의 축복받은 기계 덕분에 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지. 정말로, 나는 내 운명을 직접 목격했어.”

휴곤은 몸을 돌려 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수많은 왕국의 임박한 왕으로서!” 라고 선언했다.

그의 병사들은 팔을 들어 올리고 합창하듯 함성을 질렀다. 휴곤은 미소를 지은 후 그들을 침묵시켰다.

그는 차분한 손길로 홀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는 나사로에게 돌아서서 단언했다.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늘을 나는 남자와 단검, 그리고 그 단검으로 신이 내린 내 운명을 바꿔놓으려 한다."

라자로는 알베르트를 바라보았지만, 망토를 두른 남자는 그저 눈을 가늘게 뜨고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에 놓인 양피지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는 우물에서 깃펜을 뽑아 끝을 툭툭 두드려 물기를 제거한 후, 계속되는 준비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고,

휴건에게 알리며 “나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휴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라자루스에게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명령했다. 그런 다음 그는 돌 단 상 위로 올라가 탁자를 돌며 그 위에 단검을 던졌다. 부분적으로 불에 탄 의자로 돌아온 휴곤은 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쳤다. "내 병사들은 모두 이 관례를 알고 있다. 이제 완전한 침묵을 지켜라." 그런 다음 그는 몸을 돌렸다. 성 하인들에게. "그리고 내 새로운 하인들도 똑같이 지키길 바란다. 모든 여자는 옆에 있는 아이를 돌봐야 하고, 아이가 소란을 피우면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부하들은 어떤 소란도 즉시 진압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공격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라. 일단 소란이 일어나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할을 맡으세요!

여자들은 모여든 하인들 사이로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아이들을 붙잡고 끌어당겼다. 그들의 가슴을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그들의 입술을 막으며, 낫가에 격렬하게 속삭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하인들 사이에는 새로운 평온함이 찾아왔다.

휴곤은 어깨 너머로 벽을 따라 늘어선 예복을 입은 고위 관리들과 기사들을 향해 말했다. 그는 손을 흔들며 그들을 내보내며 "비켜서십시오. 계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마치 파도처럼 그들이 흩어지면서 휴곤과 그의 점성술사만이 남게 되었다. 휴곤은 몸을 돌려 나사로를 가리키며 짧고도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움직이거나 말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홀의 낡은 이종문 앞에 서 있는 석궁병들을 향해 손가락을 튕기며 나사로에게 손짓했다.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 나사로에게 활을 겨누었다.

라자루스는 숨을 죽이고 휴건에게서 점성술사로, 그리고 그들 뒤편과 탁자 뒤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남자들의 무리로 시선을 돌렸다. 남자들이 계속해서 흩어지는 동안, 벽 아래쪽에서 라자루스는 다시 한번 달시 쿠르 경의 얼굴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러나 달시쿠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라자루스는 고개를 저으며 어깨를 으쓱하며 말없이 ‘왜?’ 라고 묻는 듯했다.

그 순간, 라자루스는 달시쿠르가 왜 계속 거리를 두었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깨달았다.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라자루스는 홀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비명을 질렀다. 달시 쿠르 경은 몸통이 없었고, 대신 키 큰 쫓대의 기둥만이 잘린 머리를 받치고 있는 창처럼 서 있었다.

“활을 들어라! 싸라!” 휴곤이 소리쳤다. 병사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달려들었고, 석궁병들이 무기를 들어 올리자 인접한 검병들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라자로를 에워싸고 뽑아든 칼로 촘촘한 원을 만들었다. “만약 그가

"움직이기만 하면, 찢어 죽여라!" 그리고 나서 그는 나사로에게 직접 말했다. "악마의 말과 악마의 비명을 금한다! 날아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시 내게 쉿 소리를 내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너는 ~하지 말라 —"

"고요!"

라자로는 시선을 돌렸지만,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치켜든 칼날뿐이었다. 땀방울이 그의 눈을 따갑게 했고, 귀는 화끈거렸으며, 클로디우스 수도사와 그가 휘두르던 지팡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휴곤은 점성술사의 반대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조금하게 손가락을 튕기며 달의 창을 가리켰다.

점성가는 펜촉을 물감에 적셔 빈 양피지 위에 올려놓고 거울 이 달린 접시 앞에 똑바로 섰다.

홀 전체에 기침이나 재채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 유지되었고, 점성술사는 달빛이 모이는 창문에 매료된 듯 앉아 있었다.

라자루스는 그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삼각대 반사판의 빛과 하나가 되었다. 남자의 미간이 굳어지고 눈은 마치 탐색하는 맹금류처럼 뒤로 젖혀져 영원을 응시하는 듯했다. 남자는 입술을 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휴곤은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섰다.

휴곤은 알베르트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어깨 너머로 텅 빈 양피지를 들여다보았다. 최면에 걸린 듯한 점성술사는 장치에 완전히 몰두한 채 글자를 적었고, 휴곤은 그 글자들을 입 모양으로 따라 말했다.

야생 동물들이 자칼과 함께 모이는 곳
악마들이 야유하는 소리와 함께 모인다
편히 쉬고 있는 모습으로, 부엉이 동지 위에 앉아 있다.
파괴적인 천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의 씨를 흠치려는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 악마의 여왕은 꿈속에서 번식하는가?
그녀는 남자와 스파링을 하면서 —

점성술사는 달빛 창문의 빛에 얼굴이 새빨강게 달아오른 휴건을 향해 몸을 돌렸다.

"밥소사, 안 돼!" 그는 숨을 헐떡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휴건은 몸을 뒤로 젖히고 생각에 잠겼다. "글쎄, 대체 뭐지?"

순식간에 두 남자의 시선은 달빛 창문으로 향했다. 창문은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정중앙에서는 더 밝은 푸른빛이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며 부풀어 올랐다.

푸른색 고리가 천천히 바깥쪽으로, 그리고 황동 거울의 둥근 테두리를 향해 퍼져 나갔다.

휴건은 점성술사와 그의 달의 창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물었다. "이게 무슨 새로운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는 탁자에서 단검을 뽑아 들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점성술사는 휴건을 올려다보며 낱낱거리면서도 동시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저분은 그의 어머니야."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마에 십자 모양을 그리며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 휴곤을 마주 보았다. "성 드니여, 저희를 보호하십시오."

휴곤은 단검을 점성술사의 가슴에 겨누었다. "정신 차려! 말해 봐!"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어머니는... 아니요, 그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리!" 라고 대답하려 애썼다.

그는 휴건의 팔을 붙잡았다. "여기서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절대 안 돼!"

휴곤은 몸을 돌려 탁자 위에 있던 달의 창을 쳐내 복도 저편으로 날려 보냈다. 창은 겁에 질린 하인들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칼날을 점성술사의 목에 겨누며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됐지?"

그 남자는 바지에 오줌을 싸고 울었다.

휴건은 그에게 캐물었다. "저 여자는 누구야?"

"그녀는—부디 부탁드립니다, 나리."

휴곤은 칼날을 턱 아래에 갖다 댔다.

"그녀는 릴—맙소사, 안 돼!"

휴건은 피를 조금 뽑아냈다. "작은 작은 뭐라고요?"

점성술사는 "안 됩니다, 나리,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휴건이 으르렁거렸다.

"릴리스! 헤이렐! 루시파엘! 모닝스타! 그녀는 이름이 많구나!" 그는 울부짖으며 쓰러졌다. 바닥에 쓰러져 자기 연민에 빠져 흐느껴 우는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와-흠! 와-흠!" 성곽 밖에서 멀리서 전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휴곤은 성곽의 반쯤 잠긴 철제 이중문에 시선을 돌려 부하들에게 입구를 더욱 단단히 봉쇄하라고 손짓했다. 성곽 밖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소집 소리 사이로 이중문 밖에서 즉각적인 방어 명령을 내리는 다급한 외침과, 죽어가는 병사들의 끔찍한 비명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주먹과 미늘창이 부딪치는 소리로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다급한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오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홀 안은 무덤처럼 고요한 침묵으로 가득 찼고, 수백 명의 눈이 이중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라자로 는 웅기종기 모여 있는 하인들을 바라보다가 울고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 사이를 헤쳐 나가는 한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은 달빛이 비치는 창문 근처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보는 눈을 살피다가 라자로의 시선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는 빛이 번뜩였다. 그는 라자루스를 향해 손짓하며 손가락을 입술에 댄 후, 문원도를 챙겨 왔던 길로 슬며시 돌아갔다.

라자루스는 휴건에게 시선을 돌렸고, 휴건이 빙글빙글 돌며 달시쿠르의 머리를 향해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

겉으로 보기에 휴건의 짧은 응시는 그로부터 어떤 단서를 얻어내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어쩌면 어떤 전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적의 요새를 확보한 후에 그를 공격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잘린 머리 와 자신의 어설픈 계산을 재빨리 떨쳐버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점성술사에게로 돌아섰다. "그녀, 누구? 이 이름 많은 악마 여자는 도대체 뭐지?"

광! 엄청난 폭발음이 홀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붕에서 떨어진 돌덩어리들이 홀 중앙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자 하인들과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폭발의 위력은 경비병들을 거의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지붕에서 파편들이 쏟아져 내리고, 뻘뻘한 먼지 기둥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려 버섯구름처럼 퍼져나가 홀 구석구석을 모래와 재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여파 속에서— 사람들이 어색하게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먼지가 가라앉고 숨 막히는 정적이 홀을 감쌌을 때—

여자들과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고, 남자들은 허둥지둥 뒤로 숨었다. 검객들은 라자루스에게서 도망쳐 나왔고, 라자루스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눈앞에 드러난 형체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귀를 뒤로 젖히고, 눈을 크게 뜨고, 날개를 펼치고, 송곳니를 드러낸 라자루스는 안개가 걷히자 그 형체를 향해 쉿소리를 냈다. 그의 앞에서 돼지 거인은 날개를 퍼덕이고, 발톱을 허공에 휘두르고, 송곳니를 치켜들고, 성 전체를 뒤흔들 만큼 우렁찬 포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벽돌.

무너져가는 천장 아치 아래에서 거대한 참나무 기둥들이 지지석의 무게에 짓눌려 차례로 쪼개지고 부러졌다. 마치 무너져가는 바벨탑처럼, 홀의 지붕은 점차 하늘을 떠받치고 있던 것을 놓아버렸다. 통째로 무너져 내린 부분들도 있었다. 돌들이 마치 토르의 망치가 내리치는 듯한 힘으로 땅으로 떨어져 병사들을 짓눌렀다. 무사한 병사들은 석궁병과 궁수들이 화살과 화살을 쏘아 거인의 옆구리를 공격하며 거인과 맞서 싸웠다. 두 번째 화살 세례가 거인의 정면을 명중하자, 거인은 포효하며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하려 했다. 그러나 거인은 그저 으르렁거릴 뿐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검은 눈으로 라자루스를 노려보았다.

"죽여버려!" 휴건은 소리치며 테이블 뒤로 뛰어들어 바닥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울고 있는 점성술사 위로 황급히 달려가 그 아래에 몸을 숨겼다.

그 테이블 위로. 예복을 입은 고위 인사들이 그의 뒤를 따라 테이블 아래쪽으로 몰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싸웠다.

나사로는 돼지 거인이 탁자 옆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눈으로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굵은 거인이 발톱을 드러내고 날개를 펼친 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화살이 거칠고 피 없는 가죽에 빗발치는 와중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몸을 돌렸다.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날개 달린 거인을 노려보았다. 날아다니는 인간과 날아다니는 짐승이 눈을 마주쳤다. 라자로는 그에 못지않게 단호한 자세를 취하며 웅크리고 날개를 펼친 채 팔을 벌리고는 사악하게 쉿 소리를 냈다.

거인은 코웃음을 치며 라자루스에게 돌진했고, 강력한 발톱으로 탁자를 날려 버렸다. 하지만 탁자가 산산조각 나기 전, 벽에 부딪히기도 전에 괴물은 다른 발톱으로 웅기종기 모여 있던 사람들을 후려쳐 복도 바닥에 뒹굴게 하고 뒤엎긴 시체들을 흠뻑렸다. 악마의 발톱에 단단히 붙잡힌 휴곤은 마치 멍하고 연약한 인형처럼 보였다. 라자루스가 도망치려 하자 거인은 다시 달려들어 송곳니 끝으로 벽을 내리쳤다. 꼼짝 못 한 라자루스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 순간 거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윤기 나는 검은 표면에 비친 엘조의 모습 이었다. 라자루스의 머리카락은 짐승의 역겨운 숨결에 휘날렸다. 괴물은 라자루스를 송곳니 사이에 끼워 벽에 밀어붙인 채 꼼짝 못하게 했다.

“날아다니는 남자, 도와줘!” 휴곤은 짐승의 꼭 움켜쥔 손아귀 속에서 썹썹거리며 말했다. 짐승은 휴곤을 송곳니 아래에 끼워 넣고 라자로 가까이로 데려갔다. 휴곤은 마치 이 끔찍한 순간 속에서 섬뜩한 유머를 발견한 듯 기침을 하면서도 질질 거렸다. 그는 라자로를 노려보며 비난했다. “네가 이 짐승을 소환했지! 날아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 순간 거인은 눈을 크게 뜨고 질질거리는 휴곤을 라자로에게서 떼어내 옆으로 돌려세운 다음 그의 머리뼈를 씹어 먹었다.

화살과 창이 빗발치는 가운데, 라자로는 몸을 낮추고 거대한 송곳니 아래로 굴러 들어가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그는 이중문을 향해 돌진했지만, 겨누어진 석궁 앞에서 멈춰 섰다. 그러나 괴물은 그를 쫓아왔다. 병사들은 라자로 위로 무기를 들어 올려 화살을 퍼부었고, 라자로는 재빨리 몸을 돌려 홀 가장자리로 방향을 틀었다. 천장에서 계속 쏟아지는 먼지와 파편 속에서 라자로는 천장의 커다란 구멍을 통해 별을 발견했지만, 재빨리 움직이는 거인은 그와 밤하늘을 향해 쏘아 올릴 화살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다.

방이 굉음을 내며 흔들리고, 홀 벽에는 점점 넓어지는 균열이 생기더니 마치 검은 번개처럼 천장에서 빠르게 내려왔다. 벽의 돌들은 무너져 내리며 폐허의 시작을 알렸다. 라자로는 단상 반대편을 가로질러 이제는 사라진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호하던 삼중 아치형 입구를 지나 돌진했다. 갑자기 베틀 기둥이 무너지면서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렸고, 떨어지는 잔해들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는 굴러떨어지며 재빨리 일어섰고, 거인이 돌무더기 아래에서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천장에 훨씬 더 크게 뚫린 구멍과 그 안으로 펼쳐진 검은 하늘, 별들의 바다를 보았다. 순식간에 하늘은 짐승의 거대한 날개 뒤로 사라졌고, 짐승은 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러다 멈춰 서서 바람을 내뿜었다.

나사로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재빨리 생각해 보았다. 마치 짐승이 자신이 그 거대한 구멍으로 탈출하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고, 그의 시도를 도발하는 것 같았다. 나사로는 돼지 거인의 엄청난 속도를 고려할 때, 가파른 상승으로는 그 거대한 발톱을 피할 만큼 빠르게 날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운 좋게도 도망치는 동안 짐승의 발톱을 피한다 하더라도, 그 괴물은 분명히 자신 보다 먼저 공격해 올 것이고, 나사로는 경험상 하늘 로 솟아오를 때 짐승의 강력한 날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사로는 이 모든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는 곧바로 몸을 떼어냈다.

대치 지점에서 분리하여 벽 아래쪽으로 더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처음 자신을 홀로 안내했던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이제 아무도 없는, 성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입구를 향해 돌진했다. 쏟아지는 회반죽 사이로 화살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거인은 바위와 잔해 더미를 헤치며 재빨리 추격했다. 아마도 지각이나 사건으로 구분할 수 없는 순간이었을 그 순간, 라자로는 입구가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을 뚫고 나갔다. 부서지는 돌들의 폭발에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세웠다. 거인은 머리를 복도 깊숙이 박고, 포효하며 무너지는 벽에 송곳니를 휘둘렀다. 라자로는 앞으로 달려나가 모퉁이를 돌아 아래쪽 성 복도와 연결된 구불구불한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 다시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니 계단 입구에서 거대한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려와 그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맹렬하게 휘두르는 송곳니가 돌을 헤치고 나아가자, 추격하는 짐승의 거대하고 땅굴을 파고드는 듯한 머리가 드러났다. 복도의 벽은 바깥쪽으로 휘어지고 천장은 짐승의 거대한 몸체를 감싸듯 무너져 내렸다. 좁은 복도가 그 거대한 덩치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멈추지 않고 복도를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사로는 복도를 따라 질주하여 그의 익숙한 투박한 문을 지나쳐 날아갔다.

이전 감금실. 그는 복도의 굽이굽이를 따라 걸어 아치형 입구를 돌아 멈춰 섰다. 그가 환영하는 듯한 철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바로 앞에, 죽은 병사들의 시체가 높이 쌓여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시체 더미 밑에서 낮은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거대한 붉은 머리 병사였다. 졸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얼굴은 부러진 검 자루 하나뿐이었다. 무너져 내리는 성의 광음과 함께 울려 퍼지는 짐승의 포효는 그를 재촉하여 시체 더미에서 시체를 끌어내게 했다. 그는 죽은 병사들을 하나씩 옮겨 벽에 기대어 세웠다. 짐승의 포효가 울려 퍼질 때마다, 새로운 공격이 가해질 때마다, 라자로를 둘러싼 벽은 흔들리고 부서지는 돌들로 물결쳤다. 문에 쌓인 시체들을 충분히 치운 후, 그는 남은 시체들을 넘어 문의 철제 걸쇠와 씨름했지만, 걸쇠는 풀리지 않았다. 발밑의 돌판들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그는 빗장을 광광 두드렸다. 무너져 내리는 돌뿔개 아래 철문이 휘어지면서 갱도 입구 주변으로 모르타르가 흘러나왔다.

“열어!” 나사로는 소리치며 어깨로 문을 세게 밀었다. 순식간에 빗장이 부서지고 경첩이 돌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먼지로 가득 찬 구덩이의 문 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휘몰아치는 잔해 속에서 저녁 공기가 그를 감쌌고, 머리 위로는 별들이 뻑뻑하게 펼쳐진 광경이 보였다. 그는 재빨리 일어서서 위로 뛰어올라 날갯짓 한 번과 함께 구덩이의 가장 윗부분을 붙잡았다. 그는 몸을 끌어올려 구덩이를 빠져나와 발을 디디고 동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나사로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구덩이 안에서 그리스도인 포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사로야, 우리를 도와줘!"

그는 몸을 돌려 먼지와 어둠이 자욱한 곳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죄수들이 사슬과 씨름하며 무너져 내리는 구덩이 벽에서 자신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빼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광! 나사로의 발밑 마당이 흔들렸다. 이는 돼지 거인이 나사로를 따라 복도를 완전히 파고들어 구덩이에서 나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갑자기 나사로는 기독교인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사슬은 무너지는 벽에서 풀려나 있었다. 마찬가지로 북쪽 사람도 부서진 돌에 발을 내리쳐 족쇄를 잡아당겨 풀었다.

나사로는 구덩이 옆에 웅크리고 앉아 격렬하게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네 사슬을 내게 던져라!" 기독교인은 족쇄의 끝자락을 나사로에게 던졌습니다. 나사로는 그 사슬을 잡고 죄수를 구멍 밖으로 끌어내어 옆으로 굴리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네 차례다! 어서!"

그러자 거인은 사슬을 던졌고, 기독교인은 나사로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너희 둘 다 도망쳐야 한다! 큰 악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 라자로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북쪽 남자는 심하게 멎은 팔꿈치의 고통에 몸을 움츠리며 땅바닥에 굴렀다. 그때 그는 두 손을 들고 마당을 서성거리며 커다란 흰 솟말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기독교인을 발견했다. 놀란 말이 그를 지나쳐 돌진하려 하자, 기독교인은 재빨리 좌우로 피하며 말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았다. 북쪽 남자는 팔을 감싸 쥐고 소리쳤다. "그래서, 또 말을 훔치려는 거냐?"

기독교인은 그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큰 악으로부터 말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나 좀 도와줘!
하지만 부상당한 북쪽 남자는 그저 옆으로 돌아누워 다시 고통을 참아냈다.

광! 그의 옆에서 구덩이 벽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며 돌들이 순식간에 빈 공간을 채웠고, 구덩이에서 먼지 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북쪽 남자는 벌떡 일어나 기독교인에게 달려가며 재빨리 말했다. "자, 우리가 이걸, 그리고 모든 걸 구하려면 ..."

기독교인은 그에게 사슬 끝을 던져주고는 뒤로 물러나 임시방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짐승을 가두라고 지시했다. 순식간에 그들은 말을 안뜰 구석에 가두었다. 기독교인은 말에 올라타 동료가 뒤따라 올라타는 것을 도운 후, 말을 몰아 안뜰을 벗어나 성문을 향해 질주했다. 흰 말은 성벽을 쏠살같이 지나쳐 미친 듯이 질주하며 땅을 휩쓸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사람이 당신을 지옥 구덩이에서 구해냈다는 거군요! 북쪽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이 그의 어깨 너머로, 천둥처럼 울리는 말발굽 소리 너머로 물었다.

북쪽 남자는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너머로 소리쳤다. "아니, 저 날아다니는 자가 너를 영광스러운 발키리에게서 훔쳐갔어. 그러니 네 자제우스는 너를 좀 더 기다려야겠군?"

"오, 그분은 개의치 않으세요." 기독교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일흔일곱 처녀들이 그렇게 관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북쪽 남자가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말조심해, 기독교인아."

이전 탄광 죄수들은 달빛이 비치는 평원을 질주하며 밤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던 중, 희미하게 깜빡이는 달과 그 황금빛 달빛의 등근 창을 가로지르는 아주 작지만 여전히 뚜렷한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제16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